

## 지역 및 재식거리가 곶취 '쌈마니' 품종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서종택, 유동림, 김기덕, 이종남, 홍미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 Effects of Planting Region and Distance on the Growth and Yield of Gomchwi 'Sammany' Variety

Jong Taek Suh, Dong Lim Yoo, Ki Deog Kim, Jong Nam Lee and Mi Soon Hong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Pyeongchang 25342, Korea

최근 육성된 곶취 신품종 '쌈마니'의 고랭지와 평단지 다수확 재배를 위한 적정 재식거리를 구명하고 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배지역은 표고가 해발 750 m인 고랭지와 해발 20 m인 평단지에서 하였으며, 재식거리는 20 x 20, 20 x 30, 30 x 30, 35 x 40, 40 x 40 cm 등 5처리를 하고 난피법 3반복으로 정식하고 노지에서 35% 차광재배를 하였다. 1년차 '쌈마니' 품종의 생육은 평단지보다 고랭지에서 컸으나 엽수는 고랭지보다는 평단지가 많게 나타났고, 재식거리간에는 40 x 40 cm구가 가장 많았고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많은 경향이였다. 그러나 주당 엽중은 평단지보다 고랭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10a당 엽수는 고랭지보다 평단지가 많았으며, 재식거리가 좁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고, 평단지 20 x 20 cm 재식구에서 543.5천매로 가장 많았다. 수량은 평단지보다 고랭지가 약간 많은 편이었으며 20 x 20 cm 재식구에서 2,983 kg/10a로 가장 많았다. 2년차에도 생육은 고랭지가 컸으며 엽수와 엽중에서도 고랭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량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였다. 재식거리간에는 2지역 모두 재식거리가 좁은 20 x 20 cm 재식구에서 높았는데 평단지는 3,369 kg/10a, 고랭지는 7,257 kg/10a로 나타났다. 3년차의 생육은 고랭지가 평단지보다 약간 좋은 편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직경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주당 엽수와 엽중에 있어서는 고랭지보다는 평단지에서 많았으며 재식거리간에는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0a당 엽수와 수량을 보면 역시 고랭지보다 평단지가 많았으며 재식거리간에는 재식거리가 좁을수록 수량성이 높아 평단지 20 x 20 cm 재식구에서 6,051 kg/10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년간의 수량 변화를 보면 평단지는 3년차까지 계속 높아지나 고랭지에서는 2년차가 가장 많고 3년차에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재식거리 간에는 2지역 모두 재식거리가 좁을수록 수량이 많고 잎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이였다.

주요어 : 지역, 평단지, 고랭지, 엽수, 엽중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1357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